



도하 아시안게임 이모저모

양태영 철봉 연기중 무릎 부상

○한국 체조의 간판스타 양태영(포스코건설)이 무릎 부상으로 연기를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불운을 당했다. 양태영은 3일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기예 단체전에서 철봉 연기를 하던

중 공중 회전 후 바를 잡으려다 미끄러졌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곧바로 일어나 후배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격려했다.

말 한마리 사료값만 700만원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 게임 승마에서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지구력경기 등 이번 대회 4종목에 각각 4명씩, 총 1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말도 물론 16마리가 나간다. 우선 말 가격은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한승마협회 박원오 전무에 따르면

마장마술이 보통 100만~200만 유로(약 12억3천만 원~24억6천만 원)로 가장 비싸고, 장애물 경기마가 50만~150만 유로 정도로 뒤를 잇는다. 말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또 만만찮다. 보통 대회 기간 15일 정도에 한 마리당 사료 값이 600~700만원이나 나간다.

'태권도통합조정위' 구성 합의

○3일 카타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태권도 경기단체인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북측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3일 태권도 기술통합문제를 다룰 '태권도통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구성에 공식 합의했다.

한편 남북한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단일팀을 파견하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남북한은 이날 카타르에서 양측 국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체육회담을 이틀만에 속개했으나, 선수 구성비율에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합의서에는 두 태권도 기구의 행정 및 기술 통합 문제를 동시에 다뤄 나갈 조정위를 구성하며 기술·규정 통일을 선행시켜 나가기로 명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연내에 4차 회담을 열기로 결정해 단일팀 구성에 대한 희망을 살려놓았다.

韓 김상규-中 수리지아 요트 '성대결'

도하 아시안게임 요트 레이저 레이드 급에서 불꽃튀는 '성(性) 대결'이 펼쳐진다. 이번 대회 요트에 걸린 금메달은 모두 14개. 그 중 6개가 남자부, 4개가 여자부에 걸렸으며 나머지 4종목은 남녀 구분없이 출전할 수 있는 '오픈(Open)'급이다. 그 중 오픈급에 해당하는

는 레이저 레이디얼급에서 한국 김상규(28·부산군청)와 중국의 여자 선수인 수리지아(19)가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레이저 레이디얼급 등 요트는 5일(한국시간)부터 1차 레이스를 시작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하나은행 FA컵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수원삼성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전남드래곤즈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9년만에 FA컵 포용

송정현·김태수 연속골 수원 2-0 꺾어

전남 드래곤즈가 9년만에 한국축구 최정상에 올랐다. 전남은 3일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2006 하나은행 FA컵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후반 11분 송정현의 결승골과 후반 40분 김태수의 추가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전남은 지난 1997년 FA컵 우승 이후 무려 9차례의 정상 도전 끝에 팀 창단이후 통산 2번째 우승컵을 차지하게 됐다.

반면 4년만에 정상등급을 노린 수원은 올 시즌 K-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성남 일화에 패한 뒤 FA컵 우승마저 놓치면서 '무관의 제왕'으로 안타깝게 시즌을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단 요청, 박준영지사 경기 관전

○박준영 전남지사가 3일 전남 드래곤즈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관전하며 지역 연고팀인 드래곤즈를 응원하고 팀이 우승하자 선수들을 격려한 후 축하 만찬에까지 참석해 "선수들이 잘 싸워 전남의 명예를 크게 높였다"고 칭찬. 4일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를 예정이던 박 지사가 이날 경기를 지켜본 것은 2주 전 드래곤즈 김중대 단장과 허정무 감독이 초청으로 박 지사를 찾아 선수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전을 요청했고 이에 응해 이뤄진 것. /박진표기자 unipark@kwangju.co.kr

서포터스 3년 묵은 샴페인 터트려

○전남드래곤즈 서포터스인 '위너 드래곤즈' 회원 1천여명이 이날 서울 상암구장에서 3년 묵은 우승 축하 샴페인을 터트려 눈길. 전남 서포터스들은 지난 2003년 전남이 전북과의 FA컵 결승전에서 패배한 사흘 뒤인 12월 3일, 결승전에 가져갔던 샴페인을 광양 전용구장 주변 땅속에 묻었던 것. 이들은 3년만인 지난 2일 우승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땅속에 있던 샴페인을 꺼내 상암구장으로 가져갔고, 경기장을 찾은 전남 축구팬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한 것.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용병거포' 서튼 KIA서 똘다



프로야구 KIA 타 이거즈가 '용병 거포' 좌타자 래리 서튼(36·외야수·사진)을 영입했다.

KIA는 지난 1일 2007시즌 새 외국인 타자로 현대유니콘스에서 활약했던 서튼과 계약금 7만5천달러(7천여만원)·연봉 30만달러(2억8천여만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서튼은 2005시즌 현대에서 124안타, 35홈런, 102타점, 타율 0.292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감타자다. 하지만 2006시즌 플로리다 전훈 도중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입은 후유증으로 88안타, 18홈런, 61타점, 타율 0.266으로 다소 부진했고, 현재는 부상을 입었던 오른쪽 팔꿈치가 완쾌된 상태다.

KIA는 그동안 미국 등에서 장타력을 보유한 외야수를 모색했으나, 서튼과 현대의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물밑 교섭 끝에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5년 연속 우승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

한국이 교리쿠컵 제7회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에서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3일 일본 후쿠오카의 센추리골프장(파72·6천505야드)에서 싱클스트로크매치플레이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6승1무승부5패를 거둬 승점 합계 29-19로 일본을 눌렀다.

한국 선수들에게는 1인당 300만원의 우승 상금이 돌아갔고 일본은 1인당 150만원에 그쳤다.

양국 기자단이 선정하는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이미미(25·KTF)는 상금 100만원과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인천-로스앤젤레스 비즈니스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381-8111

신세계투자금융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062-431-3130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advertisement for 리틀자이니 Chinese Language Academy

TOEIC 만점의 꿈! advertisement for 동아외국어학원